



**지하철참사 희생자 위령재**  
운산 태고종 총무원장은 6일 대구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지하철 참사 희생자 원혼을 달래는 위령재를 봉행했다.



**종로구민과 푸른나무심기**  
지흥 조계사 주지는 5일 '종로구민과 함께하는 푸른 나무심기' 행사를 갖고, 배화여자대학 뒷산에 잣나무 350주, 보리수 6주를 식수했다.



**사찰신도회 임원연수교육**  
마근 속초 신흥사 주지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신흥사 교육관에서 사찰신도회 임원연수교육을 실시한다. (033)636-7393



**참전과 반전 주제로 강연**  
진관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는 16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참전과 반전 불교적 담론'을 주제로 강연한다.



**대불어 회장에 재추대**  
정여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은 3월 29일 부산 여여선원에서 열린 제17차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추대됐다.



일 주 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재선임**  
법안 서울 금선사 주지(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집행위원)는 7일자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됐다.



**16일 현각스님 초청법회**  
우학 영남불교대학 학장은 16일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8시 두 차례 53선지식 초청법회에 현각스님을 초청한다.



**장학금·이웃돕기 일일차집**  
정수 성북구불교사망연합회장은 18일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보문동 광에서 장학금·이웃돕기 성금 마련 일일차집을 연다.



**8인 큰스님 초청 대법회**  
실상 대구 법암사 주지는 5월 1일부터 8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7시에 8인 큰스님 초청 대법회를 연다. (053)766-3747



**제5차 백일기도 입재식**  
유수 정토회 대표는 20일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정토행사 4차 천일결사 중 제5차 백일기도 입재식을 봉행한다.



**동방대 불교문화 답사여행**  
정태혁 동방불교대학장은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교생이 참여하는 불교문화 답사여행 및 위파사나 요가수행체험을 실시했다.



**만해도자문화체행 행사**  
정상옥 대한불교청년회장은 26, 27일 양일간 경기도 여주 길은도 자재협학교에서 만해도자문화체행 행사를 연다.



**정병조 교수 초청 법회**  
오상현 보현불교대학 이사장은 30일 오후 7시 보현문화회관에서 정병조 교수 초청 특별 법회를 연다.



**대불련 서울지부 모임**  
박종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은 5일 성신여대 수정관에서 서울지부 전체모임인 '프로포즈'를 개최했다.

세미나 통해 사회문제 해결책 제시  
동문회에 인권통일·학술위 등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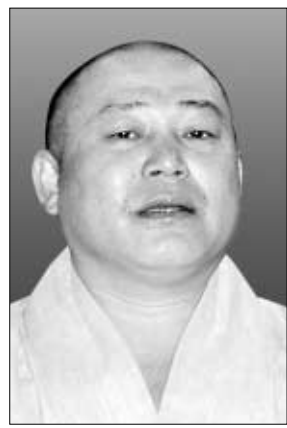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대학원 동림동문회장 지암 스님

"동림회가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불교의 대사회적 해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습니"

11일 오후 4시 동국대 상록원에서 취임식을 가진 제6대 동국대 불교대학원 동림동문회장 지암 스님(양평 불광정사 주지·사진). 스님은 지난 1월 13일 세검정 하림각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6대 회장에 추대됐다.

동문회 1기 자문위원인 지암 스님은 '91년 동국대에 불교대학원이 설립되면서 창립한 동림회를 모태로 93년 동문회가 설립된지도 10년이 됐다'며 "이제는 사회 환경 등 대사회적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님은 동문회 조직에 인권통일위, 사회복지위, 포교위, 학술위, 의례위, 문화위, 기획실 등을 만들었다. 스님은 또 "포교기금을 조성해 불교



계 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일정정도 자질을 갖추고 있는 만큼 단체의 내실화를 통해 불교공동체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91년 동림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지암스님은 광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불광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양평 불광정사 주지며, 광덕 스님의 토굴이었던 태능 보현사를 봉사중이다.

한편 동림동문회는 동국대 불교대학원 졸업생들의 모임으로 회원은 약 1천여명이 있다. 동림동문회는 94년 개혁회의 9개 동참단체중 하나이다. 동림동문회는 매년 소년소녀가장돕기, 청소년 장학금 지급, 독거노인돕기, 수해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조계사 청년회 절하기대회

조계사청년회(회장 정우식)는 8일 법당에서 제 2회 절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는 55명의 불자들이 참여해 평소 같고 닦은 절하기 실력을 겨뤘다. 강미정(30)씨를 비롯한 8명의 불자들이 1등상인 일심상(총무원장), 2등상 환희상, 3등상 정진상을 수상했다.



선재동자원 요사채 기금 바자회

의정부 불교사망연합회(회장 종명)와 '좋은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사장 정암)'은 8일 의정부시 보육시설 선재동자원 요사채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에서 나온 수익금 전액은 요사채 건립기금으로 충당된다. 현재 선재동자원(원장 지산)은 조립식 가건물에서 70여 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삼광사 영위탑 기공식 봉행

부산 삼광사(주지 도원)는 10일 도용 종정스님, 윤덕 총무원장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위탑 기공식을 봉행했다. 도원스님은 "영위탑 건립으로 자손대대로 부처님 가르침속에서 지혜와 복덕을 닦아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위탑은 총 건평 600평 규모로 2004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충효사 효도큰잔치 봉행

부산 충효사(주지 해공)는 7일 해운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민족화합 국운융창 기원 방생수륙대제 및 생명사랑 자비실천 효도큰잔치를 봉행했다. 5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수륙대제는 1부 방생수륙대제, 2부 기원대법회, 3부 생명사랑 자비실천 효도큰잔치의 순서로 진행했다.



불교상담개발원 법인화  
마음산책음악회 개최

이근후 불교상담개발원장(사진)은 3일 성균관대 새천년홀에서 사단 법인화를 위한 마음산책 음악회를 개최했다. 정목스님의 사회로 1부 기념식과 2부 음악회로 나눠 진행된 음악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 자비의 전화 회장 성덕스님, 추진위원장 성관스님(조계종 총무부장)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김규형의 모듬북 연주, LMB의 중창, 한태주 군의 오키나나 연주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라크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자비명상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조성된 후원금은 불교상담개발원의 법인화 기금으로 적립된다.



진각복지재단 설립 5돌  
성초종사 등 유공자 표창

효암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사진)는 4일 서울 성북구 진각종 총인원에서 설립 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진행된 진각복지발전 유공자 표창에서는 진각복지재단 전 대표이사인 성초(남부심인당 주교) 종사와 전 상임이사인 회정(밀각심인당 주교) 대정사가 공로패를 받았으며, △차주영(신내어린이집) △윤가영(윤문종합사회복지관)씨가 진각복지인상을 받았다. 또 △김찬영(낙동종합사회복지관) △김학재(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백은수(진각복지재단)씨가 모범후원자상을, △이수영(서울시립노인요양원) △강정열(윤문종합사회복지관) △천순희(성북노인종합복지관) △허준수(곰두리네 집)씨가 모범자원봉사자상을 각각 받았다.

우물 파주기 인도에 큰 도움

일시 귀국 지바카병원 결핵관리 김동훈 팀장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지원하고 있는 인도 동게스오리 수자타 아카데미 인근 마을 우물 파주기 사업으로 마을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콜레라 등으로 큰 피해를 봤던 마을사람들로서는 생명의 물과 같을 겁니다." 6일 인도에서 귀국한 김동훈 인도 지바카 병원 결핵관리팀장(본지 인도 통신원·사진). 김 팀장은 결핵관리 검사 방법과 콜레라 대응 방법을 배우기 위해 한 달 간의 일정으로 귀국했다. 남동우 기자

인도 JTS에는 이사장 법륜스님이 탁사사이사상을 수상한 이후 일반인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져 현재 실무자와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18명이 상주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최근 수자타 아카데미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러간 40대 주부 2명도 포함돼 있다.

"현재 지바카 병원은 개보수 공사로 한창입니다. 건물 자체뿐 아니라 병원 운영 시스템까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할 겁니다." 인도에서는 약초 등을 이용한 대체의약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큰 외상 등에는 별 효험이 없어 대체의약과 서양의학을 접목시키고 있는 중이다. 지바카 병원에서도 현지 양의사들의 자원봉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 가족은 특별하다!!**  
가족을 사랑하는 특별한 방법! 지금 전화주세요!

**수신토종오가피**  
**수신천사토종오가피**

국내 최대 오가피 제자 성 광 수氏

월드컵 축구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아시아인계임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직접 재배한 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국내 최대 오가피 농장에서 생산합니다.  
- 바로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이제 우리 아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수신토종오가피를 준비해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02] 447-0047**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결핵(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결핵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를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결핵(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결핵)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지난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피부와 혈액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넘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반달 납부 가능**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매당되는 증상(0)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든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 편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빠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노나 감성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매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CUMIM 한국방향연구소 ☎80+200+4545, 02)755+9821